

“게임 속 그 음악, 클래식이었군요”



금호아트홀과 '한뼘 클래식'이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도란도란 한뼘 클래식'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이다. <금호아트홀 제공>

금호아트홀 ‘...한뼘 클래식’ 가보니
매주 금요일 청소년 눈높이 음악회
게임·애니 속 친숙한 음악 소재
참여학생들 해설 듣고 직접 연주도
자유학기제 연계 문화 프로그램

제목은 몰라도 들어보면 “아하, 그 곡”하는 클래식 음악들이 있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역시 마찬가지다. ‘게임’ 배경 음악으로 사용돼 아이들에게도 친숙한 곡이다.

지난 10월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객석을 가득 채운 학생들이 피아노 5중주로 연주되는 ‘루슬란과 루드밀라’를 흥미롭게 감상했다. 연주 전 게임 화면을 영상으로 먼저 접한 학생들은 훨씬 친근하게 클래식 음악에 다가갔다.

이날 열린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란도란 한뼘 클래식’은 금호아트홀과 ‘한뼘 클래식’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학생들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클래식 음악회’다. ‘클래식은 어렵고 따분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과 친해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금호아트홀은 자유학기제와 청소년문화체험활동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이날 음악회

에는 금호중앙중 3학년 학생 200여명이 함께했다.

‘한뼘 클래식’의 특징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아이들에게 친숙한 장르와 클래식을 결합한 데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히사이시 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보로딘의 ‘첫가락 행진곡’,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등이 연주됐다. 각 곡이 연주되기 전에는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영상들을 함께 제공해 클래식과 친숙해지도록 했다.

또 가까운 거리에서 전문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라이브 연주와 함께 음악회 전문 아나운서의 유익한 해설도 곁들여져 아이들이 이해를 도왔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이서희, 테너 윤순환, 바이올린의 박하늘·박주양, 비올라 양운서, 첼로 정아름 등이 연주자로 참여했다.

관객 참여도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참가 학생이 무대에 올라 멜로디언과 피아노로 ‘첫가락 행진곡’을 함께 연주하기도 했다.

연주 후 만난 김승민(금호중앙중 3년)양은 “테너 선생님이 부른 ‘오페라의 유령’이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바이올린 연주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민지 학생은 “수행평가 때문에 가끔 음악회에 가는데 잘 알지 못하는 곡이 나와 감상하는데 힘들었다”며 “이번에는 재미있고 한번쯤 들어본 곡들이어서 흥미로웠고 ‘왕벌의 비행’이 인상적이었다”

고 말했다.

‘한뼘 클래식’은 대학에서 석학을 전공하고 평화방송을 거쳐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 음악회 전문 아나운서 양종아씨와 교육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해온 김신영씨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해 제작했다. 김 예술감독은 3년전부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음악회도 기획해 왔다.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클래식하면 지루하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클래식 공연도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재밌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죠. 게임이나 TV 광고 등에서 익숙한 음악을 매개로 삼으면 훨씬 쉽게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어요. 친근하게 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후 라이브로 전곡을 연주해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들려주려고 합니다.”(김신영)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역시 레퍼토리 선정이다. 현직 음악교사들의 조언을 듣고 7종의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곡들을 검토한 후 아이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곡, 그리고 꼭 들려주고 싶은 곡들을 선별해 프로그램을 짰다.

“선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갖도록 영상 등 자료를 준비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요. 내 아이가 들을 음악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김신영)

공연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되며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음악회도 가능하다. 프로그램 역시 변경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이 밥주고 자장가 부르는 ‘스웨덴 아빠들’

13~30일 광주여성재단 사진전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재단 내 8층 여성전시관에서 평등양육 실현을 위한 사진전 ‘스웨덴의 아빠’를 개최한다.

광주여성재단이 주최하고 주한스웨덴대사관·스웨덴대외홍보처가 공동주관하는 이 사진전은 현재 전세계 순회 중으로, 성평등 시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 아빠들의 역할 조명과 일·가족양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스웨덴의 많은 남성들은 부모휴가를 통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4년 기존의 출산휴가를 대체하는 부모휴가를 최초로 도입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는 누구나 부부 합산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기간 중 아빠와 엄마는 각각 최소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390일 동안 급여의 약 80%를 지원받는다.

이 같은 스웨덴 아빠들의 사진이 광주여성재단 여성전시관에 내걸린다. 작품은 스웨덴 출신 사진작가 요한 배브만(Johan Bavman)이 육아하는 스웨덴 아빠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사진 25점이다. 사진은 최소 6개월 이상의 부모휴가를 선택해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25명의 스웨덴 아빠를 카메라에 담은 기록물들이다.

전시 오픈 행사는 13일 오후 2시 재단 8층 여



요한 배브만 작

성전시관에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시장에서는 전시 관련 엽서뿐 아니라 스웨덴 문화와 요리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받을 수 있다. 전시 문의 062-670-0535.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 ‘가무악의 빛’ 공연

9일~10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창극단이 오는 9일과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51회 정기공연 ‘가무악의 빛’을 연다.

이번 공연은 창극단 유영애 예술감독의 취임 후 첫 정기공연으로 가야금병창, 판소리, 무용, 기악, 타악, 단막창극 등 전통국악의 기본인 가·무·악을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무대다.

공연의 본판을 책임질 시나위, 판소리, 살풀이,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도창, 대북 가무악 공연과 함께 단막창극 ‘심봉사 황성 가는 길’이 무대에 오른다.

심봉사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은 심봉사가 맹인전치에 참석하려고 황성 길을 가는 도중

땀덕 머리가 도망가는 등의 우여곡절을 한바탕 유쾌하게 풀이낸 무대다.

살풀이와 같은 개인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독무대와 함께 시립창극단원의 단막창극 공연을 배치해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창·명인·명무가 등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창극단에서 활동 중인 국악인 남상일이 사회를 보며, 송순섭, 조동달, 김수연, 유영애, 이호연, 진유림, 채향순, 이은하, 문명자, 이영애, 이난초, 황승욱, 주소연, 박지윤, 정화영, 김무길, 이종대, 원장현, 홍옥미, 조옥선, 서영호 등이 출연한다. S석 2만 원 A석 1만 원(학생 전석 50% 할인). 문의 062-526-036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한국문화관 최적 후보지 서울 용산공원 의결

그동안 문화관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자 건립 계획이 잠정 중단됐던 국립한국문화관이 서울 용산공원 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강형철 문화진흥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한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문화진흥정책위원회는 3차례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내 국립중앙박물관(문체부) 부지를 국립한국문화관 건립의 최적 후보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연내 ‘국립한국문화관 설립 협의회’를 구성해 주변 지역과의 생태·문화적 적합성을 검토한 뒤 부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구성될 협의회는 문화관 건립·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운영기관·조직 체계 등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한국문화관 자료수집위원회를 구성, 문화 유산의 수집·보존 대책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은, KAIST 초빙 석좌교수 임용

고은(사진) 시인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문사회과 학부 초빙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임용기간은 11월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오는 27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은 시인은 오는 10일(오후 4시) 교내 장의학관에서 ‘시와 세계’라는 주제로 석사리더십 강좌를 진행하는 등 학생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특강 등을 진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농촌 · 어촌 · 산촌 三村에서 만나는 착한 농부

이연복

강례오

매주 금요일 밤 8시 20분

유쾌한 삼촌

착한 농부를 찾아서

CHANNEL A